

역사교육의 생활화

인문대학 독일문학과 지명렬

서울대학교 병원 캠퍼스 내 의학박물관 앞에는 지식영 선생의 동상이 세워져 있고, 대좌 전면 하단에는 동상건립 취지문이, 뒷면에는 선생의 약력이 새겨져 있다. 취지문은 교육기관인 관립의학교 초대 교장으로 이 땅에 의학교육의 기틀을 마련한 선구자의 높은 업적을 기리고 숭고한 이념을 기리 전하기 위해 뜻있는 이들이 정성을 모아 동상을 건립한다고 쓰여 있다. 동상이 위치한 지점으로부터 의대 정문으로 통하는 길을 「지석영길」이라 명명하여 노비가 세워져 있다. 1999년 3월 24일 의학교 관제 반포 100주년을 기념하여 서울의대동창회가 설립하였다고 새겨 있다. 그 밖에도 2008년 10월에는 서울대학교 한국 의학 인물사 편찬위원회가 『한국 의학 인물사』를 발간하였다. 우리나라 서양 근대의학의 기초를 닦은 선학들의 인간적 면모와 학문적 업적을 담은 책이라 한다. 그 내용은 지식영을 비롯한 11명의 의학 선구자들, 정일천을 비롯한 15명의 한국 근대 기초의학분야에 큰 업적을 남긴 석학들, 김동익을 비롯한 임상의학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26명의 의사들이 소개되어 있다고 한다.

무릇 역사기술에는 어려움이 많다. 여러 대상자들 중에서 소수를 선정하여 역사적 인물화하는 실무 작업에 있어서 집필자들의 의견이 구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편찬위원회는 슬기롭게 여러 난제를 극복하고 해결하여 한국 의학사라는 기록문화의 금자탑을 수립하였다. 이로써 한국 의학의 뿌리가 확인된 것이다.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둔 것은 권이혁 전 서울대학교 총장님 같은 최고원로 교수의 직접참여와 지도에 힘입은 바가 크리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의과대학 교수, 동창생들의 높은 역사의식, 그리고 역사를 형상화하고 기록하려는 열의와 성의에 지대한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이제 관악 캠퍼스로 시선을 돌려보자. 박정희 대통령이 기공식에 참석하여 발파하던 장면이 눈에 선한데 어느새 수많은 건물이 가득히 세워져 학문의 전당을 창건하여 많은 인재를 양성 배출하였다. 「인결은 지령」이라는 말과 같이 관악산 영기를 받아서인가 보다. 세계 10대 대학을 지향하며 일취월장하고 있는 서울대학교의 위풍이 당당하기만하다. 이렇게 감탄하다가 가만히 캠퍼스 전경을 살펴보면 어딘가 좀 부족한 감도 든다. 전체적인 시머트리·균제의미가 아쉽다. 또 무엇인가 하나 빠져있는 허점이 보인다. 그것은 다름 아닌 캠퍼스의 중심점이다. 대학본부 건물은 대학 행정의 중심부일 뿐이다. 학문의 중심을 상징할 만한 구조물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 것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대학본부 앞 광장에 퇴계, 율곡 두 석학이 손을 잡고 서있는 동상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 단일 동상보다는 두 사람의 동상이 의미가 크다. 그것은 공생, 공학의 표상이기 때문이다. 학문하는 사람도 다른 사람과 함께 살고, 함께 학문하는 것이 원만하다.

좀 송구스럽기는 하나 외국의 예를 한 둘 들어 보기로 한다. 독일의 바이마르시에는 괴테와 실러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는 동상이 세워져 있다. 그들은 10세 연령 차이는 있으나 상부상조하며 독일 고전주의 문학을 발전시켜 뒤떨어진 독일문학을 서구수준으로, 나아가 세계문학으로 격상시켰다. 그들의 개별적인 동상은 전국에 수다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합친 것보다도 이 한 쌍의 동상이 더 유명하며 세계적 명물이 되었다. 이 동상으로 인해서 바이마르시가 독일의 정신문화의 중심지로 인지되고 있다. 또 하나의 시청사 앞에 서 있는 그림형제의 동상도 명물이다. 그 형제는 평생 한 지붕 밑에서 살았고, 직장도 소도시의 도서관 사서로 함께 근무하며 가난한 생계에도 불구하고 여가를 선용하여 동화를 수집하여 유명한 「그림동화집」을 발간했다. 이 동화집은 독일문학이 세계문학에 기여한 것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며 세계문학사에 불멸의 문화적 공적을 남겼다. 「언어는 얼이요」라는 말은 그들이 한 말이다. 동화 속에서 독일민족의 얼을 찾았다. 나아가 독일어 문법을 정리하고 독일어 사전 편찬을 시작하였다. 「그림사전」 편찬 작업은 그들 형제 사망 후에도 후학들이 계승하여 1961년에야 잠정적으로 완성본을 발간했다. 제1권이 발간된 지 100년만의 일이다. 완본 출간 후에도 보완 작업은 계속되었고 동서 분단시절에는 양쪽에서 선발된 학자들이 국경을 넘어 공동 작업을 계속하였다. 이 사전도 세계적 문화재로 평가되고 있다. 그림형제야말로 〈공생〉, 〈공학〉의 완전한 모범상이다. 내국인이거나 외국인을 막론하고 그들 동상 앞에서 친근한 경의를 표한다. 이와 같이 영원한 문화를 창출한 선현과 인류의 사부를 기리는 동상이 보는 이에게 주는 카타르시스 효과는 지대하다.

이제 우리도 캠퍼스 중심에 퇴계, 율곡 동상을 세워 성역화하고, 그곳으로부터 뻗어나간 길에도 선현들의 이름을 붙여 생명을 부여하고 인맥을 연결하면 캠퍼스 전체가 마치 살아있는 거대한 생명체 같이 심장이 고동치고 맥박 치는 학문의 전당으로 약동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살아있는 역사 속에서 산다는 것이 바로 인문교육이 아닐까? 인문학의 침체를 개탄하기에 앞서 그것을 진작시키는 노력이 요긴하다.

서울대학교는 매사에 국내 각계의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으니 그 파급효과도 기대되는 것이고 외국인 방문객들도 아카데미한 환경에서 좋은 인상을 받을 것이다. 나의 제언은 경천동지할만한 대단한 사안은 못 되지만 실천하면 역사교육의 생활화에 적잖이 기여하리라 사료되어 감히 진언하는 바이오니 이 제언이 다만 제언으로 그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